

퓨어스토리지, 하이브리드 솔루션을 대체할 2 세대 플래시어레이//C 출시

- 높은 내구성과 일관된 성능으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다루는 워크로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업계 최초의 엔터프라이즈급 올-QLC 어레이

2020 년 9 월 7 일 —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구독형 스토리지(storage-as-a-service) 모델을 제공하는 IT 선도기업 퓨어스토리지(www.purestorage.com/kr, 지사장 배성호)가 대용량의 데이터를 최적화된 비용으로 운영해야 하는(capacity-oriented) 워크로드의 운영 비용을 절감하여 레거시 하이브리드 디스크 어레이의 필요성을 대폭 줄인 2 세대 플래시어레이//C(FlashArray//C)를 발표했다. 업계 유일의 올-QLC(all-QLC) 스토리지 어레이인 플래시어레이//C 는 퓨어스토리지의 다이렉트플래시(DirectFlash™) 기술과 퓨리티(Purity)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엔터프라이즈급 성능 및 기능을 비용 효율적으로 제공하며, 플래시 스토리지를 모든 활용 사례에 적용 가능한 메인스트림으로 만들고자 하는 퓨어스토리지의 비전을 한걸음 앞당겼다.

오늘날 기업들이 직면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은 혁신과 운영효율성에 모두 집중하면서 인적 및 재정 자원을 확보해 새로운 수요가 있는 환경에 투자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강화해야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IT 조직들은 레거시 스토리지의 경제적인 문제와 성능의 한계로 인해 높은 성능이 필요한(performance-oriented) 워크로드와 그 외의 작업들을 구분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데이터센터들은 불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트레이닝 비용으로 인한 복잡성과 비효율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퓨어스토리지는 업계 최초이자 유일한 엔터프라이즈급 올-QLC 플래시 어레이인 2 세대 플래시어레이//C를 통해 로우(raw) QLC를 높은 내구성을 갖춘 매체로 전환하는 한편 시중에 있는 유사한 규모의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어레이 대비 30% 비용 절감을 제공해 QLC의 강점을 더욱 확장해 준다. 플래시어레이//C는 24.7테라바이트(TB) 또는 업계 최대 용량인 49테라바이트의 QLC 다이렉트플래시 모듈을 통해 스토리지 인프라의 TCO(총소유비용)를 최저 수준으로 낮춰준다. 이를 통해 백업 및 데이터 보호, 테스트/개발 환경과 워크로드 통합 등 스피닝 디스크 또는 비효율적인 하이브리드 솔루션을 주로 사용했던 작업에서도 올플래시 스토리지를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

현대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미션 크리티컬 워크로드 또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운영해야 하는 워크로드 및 애플리케이션과 구분없이 모든 데이터에 대한 신속한 접근이 필요하다. 퓨어스토리지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 워크로드를 위한 플래시어레이//C와 성능과 속도가 필요한 워크로드를 위한 플래시어레이//X(FlashArray/X)로 구성된 플래시어레이 제품군과

클라우드 환경을 위한 클라우드 블록 스토어(Cloud Block Store)를 통해 하나의 민첩한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에 모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하여 IT 운영을 대폭으로 간소화 및 가속화한다. 플래시어레이 플랫폼을 관통하는 공통 데이터 서비스는 다양한 워크로드, 환경 및 클라우드의 데이터에 쉽고 빠르게 접근하고 이를 관리 및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조직들은 백업 저장소 및 워크로드 통합 등 대용량 워크로드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터베이스 등 고성능 워크로드에서 비롯된 데이터를 한 곳에서 통합함으로써, 공통 API, 모니터링 및 세계적인 수준의 지원을 누리며 플랫폼 전체에 걸쳐 강력한 분석을 수행하여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퓨어스토리지 플래시어레이 제품 마케팅 VP 스캇 베이커(Scott Baker)는 “비용 효율적인 대용량 솔루션은 모든 데이터 스토리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하나의 완전한 플랫폼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의 복잡성에 대한 고객들의 깊은 고민을 해소시킨다”며 “2 세대 플래시어레이//C 를 통해 퓨어스토리지는 혁신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입증했으며, 플래시를 경제적 측면에서도 하이브리드 스토리지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더 넓은 활용 사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플래시어레이//C 는 퓨어스토리지의 제품군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제품 중 하나다. 플래시어레이//C 는 일관적이고 경제적인 올플래시 성능을 통해 워크로드를 통합하고 스토리지를 간소화한다. 디스크 및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플래시어레이//C 로 교체할 경우 상면 공간, 전력, 냉각,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낮은 비용으로 대용량을 지원하는 플래시어레이//C 는 반복적인 작업에 활용되던 IT 리소스를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글로벌 기술 서비스 제공업체 NTT(전 시큐어 24, Secure 24) 매니지드 서비스 부문 CTO 셀도널드슨(Sean Donaldson)은 “플래시어레이와 퓨리티를 통해 성능 또는 용량이 중요한 워크로드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하여 운영환경을 간소화하고 모든 데이터를 아우르는 공통 데이터 서비스 및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올-QLC 플래시어레이//C 를 모든 데이터센터에 도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대용량 고밀도 솔루션의 장점을 계속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퓨어스토리지의 플래시어레이//C 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 **뛰어난 엔터프라이즈 경험:** 올-QLC 플래시어레이//C 는 퓨어 1®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 (Pure1® cloud data management), API 자동화 및 AI 기반 기술지원을 통해 모든 플래시어레이 제품이 제공하는 99.9999% 이상의 가용도를 위해 설계되었다. 엔터프라이즈급 QLC 는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 및 웨어레벨(wear-level) 소프트웨어, 그리고 과도한 프로비저닝 없이도 일관된 내구성 및 지속적인 성능을 제공한다.
- **모든 워크로드에 적합한 심리스(seamless) 플랫폼:** 플래시어레이//X 및 플래시어레이//C 는 성능 또는 용량이 중요한 모든 워크로드를 위한 완전한 솔루션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업은 하나의 스토리지 운영 체제를 통해 모든 워크로드를



관리함으로써 인력 및 트레이닝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크게 줄이고 IT 팀의 민첩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모든 데이터, 워크로드, 운영 제어 및 리포트들을 하나의 창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 **지속 가능하고 유연한 소비 모델:** 플래시어레이//C 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필요 없는 무중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인프라스트럭처를 10 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에버그린\(Evergreen™\)](#)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고객들은 [서비스형 퓨어\(Pure-as-a-Service\)](#)를 통해 사용한 만큼만의 비용을 지불하며 클라우드 경험을 누릴 수 있다.

2 세대 플래시어레이//C 는 바로 이용이 가능하며, 플래시어레이//C 의 이점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퓨어스토리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